

## 죄에서 구원으로 : 한국 초기 개신교 여성들의 개종<sup>1)</sup>

이유나(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 I. 서론

“저기 놓인 쇠통 보게, 엄동설한 요긴 하네. 치운 사람 덩게 하니, 생각건대 화덕일세.  
식은 지체 되지 말게, 항상 사람 덩게 하네. 네가 정말 화덕이나, 덩게 하니 화덕일세.  
찬화덕에 불씨 두게, 석탄불로 덩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신 불로 덩게 하세.  
맘이 찬 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 여기 있네. 예수천하 화덕 되니, 온화하고 더움 일세.”<sup>2)</sup>

이 글은 한국 개신교 유입 당시 여성들의 개종을 분석하고, 그 종교적 의미를 밝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주지하듯이 개신교의 등장은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했다.<sup>3)</sup> 개신교의 평등주의적 가치들은 여성의 새로운 종교적 삶의 기반이 되었고, 개신교가 마련한 교육은 전통 사회에선 불가능했던 공적 영역의 진출을 가능케 했다.

물론 개신교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여성들의 개신교 선택으로 직결된다는 암묵적 전제는 어쩌면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반화는 ‘개신교가 여성들의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필연적 인과 논리로, 때로는 ‘개신교가 또 다른 여성 억압 장치로 작용했다’는 거부장제 비판 논리의 근거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당시 여성들은 왜 개신교를 선택했고,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한국 개신교사 속에서 여전히 침묵의 주체로 남아있는 초기 여성들이 과연 개신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개종’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1) 이 글에서 ‘초기 개신교’는 1910년까지를 의미한다.

2) 이 시는 1901년 5월에 평양 남산현 교회에서 열린 부인 글짓기 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강매불, 임통달, 전삼덕, 김소라의 연작시이다. 《신학월보》, 제 3권 11호(1903년 11월), p.482.

3) 양현혜, 「근대 한국 사회의 변혁과 기독교 여성」, 『민족과 여성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pp. 143-169를 참조할 것.

## II. '이야기'와 '사실'로서의 개종

"...나는 그 책을 집어 들고 펴서 내 첫눈에 들어 온 구절을 읽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 13-14)'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읽을 필요도 없었다. 그 구절을 읽은 그 순간에, 완전한 확실성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고 모든 불확실성의 어두움을 몰리쳤다..."<sup>4)</sup>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종 이야기는 극적인 개종 사건을 밝혀주는 전형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sup>5)</sup> 그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로 그 순간 과거의 자신을 모두 지워버린다. 그의 진술 속에서 개종은 오랜 기간 동안의 고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결정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깨닫고 그것과 더불어 과거와 절연하는 행위이다.

극적인 개종은 이전과 이후(before-and-after)의 구조를 갖고 있다. '한때는 잃었던 것을 이제는 찾았다',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다' 혹은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다' 등의 전형적인 개종 이야기 속에서 개종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서술된다. 또한 개종 이야기 속에서 과거와 현재는 '어두움'과 '빛'처럼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단절은 서술 방식일 뿐만 아니라 개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종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가정 하에서 과거는 현재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간이다. 과거는 단지 현재를 위해 기술되는, 현재에 의해서 새롭게 규정되면서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점철된

4) St. Augustine,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 F. J. Sheed tr.,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2, p.146.

5) 종교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개종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의지적 유형(volitional type)으로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뤄지는 개종이다. 둘째는, 개종자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유형(surrender type)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의지적 유형보다는 즉각적인 유형의 개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유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바울의 개종을 모델로 한 것이다. William James,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Modern Library, 1902, pp. 195-198. 최근에는 즉각적인 유형이 개종의 전형이 되어왔고 개종 연구가 개인의 경험으로만 중시되었다는 비판 하에, 개종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연구들로서는, Eytan Bercovitch, "The Altar of Sin: Social Multiplicity and Christian Conversion among a New Guinea People" in Susan L. Mizruchi, eds., *Religion and Cultural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Vincente L. Rafael, *Contracting Colonialism: Translation and Christian Conversion in Tagalog Society under Early Spanish Rul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Peter van der Veer, ed., *Conversion to Modernities: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ity*, New York: Routledge, 1994. 등을 참조할 것.

시간으로 기억된다. 결국에 과거는 긍정적인 현재를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장치로 전략하게 되면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개종 이야기 속에서 과거는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개종이 연구 대상이 될 경우, 이런 단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fact)'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하게도 역사적 자료들 속에서 개종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일종의 공식화된 이야기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은 일차적인 경험을 다시 구조화된 이야기로 번역하고 해석한 이차적인 작업임을 상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종에 대한 담론들은 이미 겪은 개종 경험에 관한 차후 읽기인 것이다.

오히려 현실에서 과거는 현재로 통합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데, 이는 인간의 삶 속에서 과거는 현재를 구성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와 현재의 단절은 사실이 이해되고 묘사되는 내러티브인 개종 이야기의 특징이며, 그것이 결코 사실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극적인 변화라는 개종 이야기의 특징을 사실의 문제가 아닌 의미의 문제로 전환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즉, 개종 주체에게 있어서 그 단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극적인 변화가 묘사되는 내러티브로서 개종 이야기를 읽게 되면 개신교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개종이 극적인 세계관의 변화라는 전제로부터 연구의 출발점을 삼지 않고, 오히려 과연 여성 개종자들이 어떻게 개신교를 선택하는지와 개종의 맥락 속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III. 개종 동기와 경로

#### 1. 개종의 동기들

##### ① 실존적인 동기

우선 여성들은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개종을 선택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6)</sup>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신분에 종속되어 있었기에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 이익은 어쩌면 여성들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여성들의 개종 사건을 살펴보면 그들의 개종 동기

6) 당시 한국인들은 개신교를 새로운 종교적 신념 체계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연결된 실천 체계의 역할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기로 국가의 체제가 변화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부침하는 격동기 사회 속에서, 개신교는 때로는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되던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때로는 서구 문명을 상징하는 기호였으며, 당시 종교 영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는 유일한 종교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남성 엘리트들은 개신교 수용을 나라의 근대화와 문명화를 위한 민족적인 기회로 여기게 되었고, 남성 민중들은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는 실존적인 동기로서,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질병 치유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고유의 독자적인 종교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물론 정통 유교 사회에서 민간신앙은 음사(淫事)이자 미신으로 규정되면서 부정적인 종교로 분류되었고, 근대에는 종교와 미신의 이분법 속에서 미신의 영역을 대표하는 존재로 부상된다. 그러나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근대 이전 한국 사회에서 민간신앙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던 신앙과 실천이었다. 집터나 무덤자리와 관련된 풍수신앙처럼 사제와 신자가 주로 남성들이던 민간 신앙도 있었고, 대표적인 민간신앙인 무속은 그 사제와 참여자가 여성이었다. 민간신앙 중 무속이 특히 여성들에겐 고유하고 독자적인 종교 영역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에게 민간신앙은 근대적인 '종교' 개념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었다. 즉, 삶 속에서 분화되어 존재하는 여러 영역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적 행위의 연속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민간신앙을 영위하는 동기는 분명히 실존적인 것이었다. 인간의 이상적인 가치 추구나 고매한 철학을 담고 있진 않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기복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민간신앙은 여성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고, 이런 열망이 적극적인 종교 실천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민간신앙이 항상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 그들의 종교가 어떤 효험도 보이지 않을 때 전통 종교 실천의 효험에 대한 회의와 실망이 고개를 든다. 실존적인 동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개신교가 더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인식하는 순간, 개종자 스스로 종교의 위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고씨 부인이...친가에 왔다가 성경을 보고 간 후에 유월이십칠일부터 몸에 신병이 나니 앓다가 칠월초육일에 친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나서 오다가 로중에서 절로 객담하기를 시작하여 어머니 보고도 욱하고 물론 상하남녀하고 욱설이 비경하기로 회당에 갔다가 결박하여 났더니 시댁 부인이 와서 결박한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데려가서 고치겠다고 가더니 판수를 불러 경 읽기를 십사일 하되 효험이 없고 도로 소경을 별세불이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하니 더욱 미쳤다고 북채로 머리를 상하와 유혈이 낭자하여 목불인견이라. 그 모친이 보러가니 그 어머니를 좃아와 다시 회당에 들어가 찬미 기도를 하고 십일일을 회당에 있더니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되어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하는 말이 내가 마귀를 이기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예수를 알리오..”<sup>7)</sup>

고씨 부인이 신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회 내에서 이뤄진 기도 때문이었고, 판수의 경 읽기는 신병 치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이런 사건은 결국 전통 종교의 효험을 부정하고 개신교로의 개종을 이끄는 결정적인 동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질병의 치유가 개종 동기가 되는 경우는 개신교 병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한국인 환자들은 병을 고쳐주면 개신교를 믿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제로 이를 계기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다.<sup>8)</sup> 일례로, 백내장 때문에 두 눈이 성치 못한 65세의 할머니는

7) <병든 부인의 믿음>, 《신학월보》, 제 4권 3호(1904년 3월), pp. 28-29.

8) “Report for the Year 1907-1908, May to May, Evangelistic,” *The Korea Mission Field* (이하 KMF), Vol.

치료를 해준다면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도 모두 예수를 믿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두 눈을 뜨게 되자 모두 개신교인이 되었다.<sup>9)</sup> 이렇듯 질병의 치유는 한국인 개종자들이 보기에 개신교가 전통 종교보다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개신교가 실존적인 동기를 만족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서 전통 종교의 힘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 종교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개신교가 그 힘을 과연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기도 했다. 강서 귀계에 사는 부녀의 이야기가 그 전형적인 예 중 하나다. 강서 귀계에는 조상을 극진히 섬기고 금으로 만든 부처 등을 섬기던 부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 과연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효험을 시험해보았다. 우상들이 조금이라도 징험이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난 후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0)</sup> 이렇듯 비록 전통 종교가 위력이 없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전통 종교의 강력한 힘은 개종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개종 이후에도 전통 종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속되었다.<sup>11)</sup>

## ② 사회 · 경제적인 동기

여성들이 개신교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인 동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은 여성들의 개종 결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sup>12)</sup> 개신교로의 개종, 소박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언문을 배우는 과정이자 성경이라는 새로운 경전을 공부하는 기회였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던 여성들에게, 교회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며 글자를 배울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신교계 여성교육 공간은 가정 안에만 갇혀있던 여성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불러내고 여성의 의식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자이를 일깨우는 장소였다.<sup>13)</sup> 물론 교육의 기회가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여성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는데, 규방의 공간에서 교육의 공간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sup>14)</sup> 이로 인해 사회적인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낮은 신분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교

4, 1909, pp. 26-27.

9) "Personal Report for 1909-1910 of Woodbridge O. Johnson, M.D., Taiku, Korea," *KMF*, Vol. 5, 1910, pp. 274-275.

10) <늙은 부녀가 도들기를 즐긴다>, 《그리스도신문》, 제 2권 32호(1898년 8월 11일), p. 9.

11) <참혹한 소문>, 《신학월보》, 제 2권 10호(1902년 10월), p. 414.

12) 당시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E. H. Miller, "Hungry to Learn", *KMF*, Vol. 2, 1907, pp. 166-167.

13) 이숙진, 「한국 개신교 주류담론이 교회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해방 이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 55.

14) "...그때 풍속은 양반의 집 부녀치고 낮에 문밖에 나가려면 교자를 타고 계집 하인을 뒤에 세우고 다녔으며 또 밤이라도 무엇을 타지 않고는 출입을 잘하지 않았으나 가세가 심히 빈곤한 집에서는 치마를 쓰고 출입하는 풍속도 있었고 이 밖에 낮이나 밤이나 장옷을 쓰고 다니는 이들은 양반 이외에 여염집 부녀라 하였으며 맨머리로 다니는 여인들은 남의 하인이라 불렀었다...", W. A. Noble, ed., *Victorious Lives of Early Christians in Korea: The First Book of Biographies and Autobiographies of Early*

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단적으로 스크랜턴 대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에 초기에는 계속 낮은 신분의 여학생들이 입학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sup>15)</sup>

교육의 기회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는 그들의 호응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례로 1901년 4월에 있었던 “평양부인사경회”의 기록을 보면, 약 50명의 여성들이 모여 14일 동안 공부에만 힘썼고, 다음 사경회에서 공부할 책 목록을 각기 적어서 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sup>16)</sup>

개신교로의 개종은 비단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초기 전도부인들의 대부분은 과부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전도부인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전도부인은 각종 기독교 서적을 파는 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서부터 교회와 학교 일까지 관여하면서,<sup>17)</sup> 개신교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공적인 역할은 이후 선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이 유학에서 돌아와서 전도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전통 사회에서의 신분 경계를 넘어선 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작용했다.

## 2 개종의 경로 : 여성에서 여성으로

초기 한국 개신교의 확산은 당시 통용되던 인적 네트워크 방식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같은 성(sex)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한국인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선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성과의 교류는 중요한 원칙이었다. ‘여성이 여성을 위하여(women for women)’라는 당시 여성 선교의 구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선교 원칙은 철저하게 같은 성 간의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런 원칙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선교 방침에 기인한 것이지만, 선교사들이 당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방식이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 여성들은 여선교사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보다는, 전국 각지로 파견되었던 한국 여성들의 전교를 통해서 개신교를 접하고 개종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선교사들이 주로 도시의 의료, 교육 사업을 통해 전교를 시도했다면, 한국인 조사와 전도부인들은 방방곡곡을 직접 돌아다니며 개신교를 전했다. 물론 남 선교사·조사, 여선교사·전도부인이 짝을 이뤄 순회전도여행 등의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으나 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전교를 행한 사람들은 조사와 전도부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당시 전도부인(Bible woman)으로 불리던 이들은 여성들에게 전도문서들과 복음서들을 파는 매서인(賣書人)이자 전교자(傳敎者)였고, 여선교사들도 이들의 역할에 선교의 상당 부

*Christians in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27, p. 57.

15) 개신교가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비단 여성들에게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H. G. Underwood's letter to Dr. Ellinwood, Jul. 6. 1885.

16) 노블 부인, <평양부인사경회>, 《신학월보》, 제 1권 5호(1901년 4월), p. 190.

17) W. A. Noble, *op. cit.*, p. 58.

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전도부인들은 외국인이나 남성들에 비해 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던 당시의 여성들에게 접근이 용이했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그 방문 자체를 환영받았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읽고 배우려는 욕구들을 자극했고 자신들의 인생에 얽힌 개종 과정을 들려주면서 여성들을 교회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sup>18)</sup>

한편 전도 부인들은 여성들의 개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들은 여성 개종자들에게 개신 교식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뜻을 설명하는 설교를 했다.<sup>19)</sup> 또한 그들은 전교를 위해 '치병 의례'를 행하는 의례 집례자이기도 했다.<sup>20)</sup> 병의 원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귀신을 믿기 때문임을 전제한 후, 전도부인은 '축귀 의례'의 집례자로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미신 숭배'의 도구들을 파괴하면서 의례를 주도했다. 소위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과거의 죄로 규정한 상징물들을 없애는 행위로서 집안에 모셔두었던 신주단지 등을 불태우거나 술서를 불태워야 했는데, 이런 과거 종교와의 절연 의례는 대부분 전교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고, 여성들은 전도부인들의 이러한 신앙 방식의 훈육을 통해서 개종을 경험했다.<sup>21)</sup>

## IV. 여성 개종의 특징들

### 1. 속죄와 배상의 결합

한국인 개종자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현재의 나, 즉 개신교인이 된 이후 자신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과거는 개종의 순간에 전적으로 부정되지만, 그 과거는 여전히 개종자의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현재의 기준에 맞게

18) Miss L. E. Frey, "The Bible Woman," *KMF*, Vol. 2, 1907, p. 42.

19) Mattie M. Ivey, "Two Homes in Seoul," *KMF*, Vol. 4, 1909, pp. 102-103.

20) Mary F. Scranton, "Day Schools and Bible Women," *KMF*, Vol. 2, 1907, p. 53 ; <평양절골소식>, <신학월보>, 제3권 12호(1903년 12월), p. 453.

21) 당시 여성의 개종은 이중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우선, 여성의 개종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성이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중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가부장적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공식적인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만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는 것은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개신교를 선택하는 것은 양반, 평민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개종한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들이 생겨났다. Edwin Kagin, "In Difficulties," *KMF*, Vol. 4, 1909, p.145. 개신교로의 개종과 그 사실의 공표는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의무와 책임을 방기(放棄)하는 행위로 비취지기 마련이다. 또한 가정과 지역 공동체에서 모두 환영하지 않는 여성의 개종은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조차 없었다.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여성은 남성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했고, 교회 또한 또 하나의 가부장적 공동체로서 여성에게 자유와 더불어 동시에 억압을 부여했다. 수많은 여성 개종자들은 외부적, 내부적 개종의 대가를 자신들 스스로 묵묵히 감수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안타까운 사연의 일종으로, 때로는 굳은 신념의 전형적인 예로 비취지면서 다른 이들의 개종을 독려하거나 공동체의 단결을 이끄는 원재료로서의 의미가 되었다. <인내로 이김>, <신학월보>, 제 3권 10호(1903년 10월), pp. 348-349.

제대로 교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었고, 교정의 행위는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속죄는 자연스럽게 배상과 결합되었고 이런 특징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강화읍내에 김씨 부인은 연방 팔십에 자녀와 친숙이 없고 홀로 과거하여 다만 복섬이라 하는 여종을 데리고 세상을 지내더니 하루는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로 작정한 후 언문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여 주야 근심하고 날마다 언문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언문 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하매 종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말하되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오’ 하고 하루는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중 복섬이를 불러 앉히고 마태복음 18장 15-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에 종 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나의 딸로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한가지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시니 종 되었던 여자가 기쁜 마음이 충만하여 친어머니같이 섬기며 날마다 온 집안이 화목한 것이 충만하니 하나님께 만만감사할 일이다. 우리 대만에 비복을 둔 사람들은 이 부인을 본받아 비복들을 놓이주고 자기도 노함 얻기를 바라노라.”<sup>22)</sup>

물론 김씨 부인이 종을 딸로 삼은 것은 이 글의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분명히 당시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성경의 역할이다. 김씨 부인은 성경을 상고하던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모든 사람이 한 형제”라는 구절에서 감동을 받고 그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종을 딸로 삼았다. 이 사건에서 성경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전거(典據)와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과거가 죄로 규정되고, 또한 성경 구절에 의해서 과거의 관계가 새롭게 교정되었던 것이다.<sup>23)</sup> 이러한 김씨 부인의 예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와 배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김씨 부인의 경우에서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속죄와 배상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일회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했지만, 그와 다른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여성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있었던 행위가 가진 의미이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일에도 열심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행위에 다름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중화읍 교회 부인 신도들은 예배당을 지을 때 거리가 먼 하천에서 물을 길러오는 육체적 열심을 보였고,<sup>24)</sup> 강계군의 이경신씨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예배당 부지를 헌납하는 연보의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sup>25)</sup>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무보수로 지속적인 전도를 펼치는 등의 열심을 보였다.<sup>26)</sup>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과거

22) 김우제, <우리나라에 드문 일>, 《신학월보》, 제 3권 7호(1903년 7월), pp. 203-204.

23) 개신교인들에게 성경은 유교 경전과 동일하게 경전(Canon)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점은 성경 구절의 확실성이 유교 경전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는 김주련, <술문답맹세문>, 《신학월보》, 제3권 4호(1903년 4월), pp. 62-64.

24) 우웅선, <부인의 열심을 감사함>, 《예수교회보》, 제 4권 20호(1913년 5월 20일), p. 5.

25) <천주의 아름다운 딸>, 《예수교회보》, 제4권 22호(1913년 6월 3일), pp. 6-7.

26) <부인열심>, 《예수교회보》, 제4권 23호(1913년 6월 10일), p. 6.



개신교를 믿지 않았던 잘못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상함으로써, 이전의 죄를 의로움으로 변하게 하려는 노력의 한 일면이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열심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개종의 상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개인적 신념을 확인하는 지표로, 때로는 공동체의 신념의 지표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 2 성적 순결의 확보

여성들의 개종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죄 고백은 언제나 속죄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속죄 행위들은 개종의 진정성을 확보하는가 하면, 다른 개종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참된 개종이자, 일종의 전형으로서의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이는 남성들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으나,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남성들과는 분명히 다른 속죄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점은 여성들이 성적인 순결(sexual purification)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평양교회 전도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재령읍의 송부인<sup>27)</sup>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과부였지만 평판은 좋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형세가 요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형세가 요부했다는 것은 당시 과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송부인은 이전의 자신이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못했음을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과부의 본분을 위해서 순결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철산에 사는 정반석이란 여성도 과부였으나 김용학에게 재가한 상태였는데, 개종 후 재가를 포기하고 혼자 살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sup>28)</sup> 이런 예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사실, 조선시대 유교적 윤리 중 남녀 또는 부부간의 조화와 상호존중을 명분으로 내세운 차별(差別)과 구별(區別)의 윤리는 젠더의 위계화를 생산했다. 차별의 윤리는 남성을 지배, 강건, 존귀 등으로 규정하는 반면, 여성을 복종, 유순, 비천 등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차별의 윤리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고 직분을 나누는 구별의 윤리를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특히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성의 비갈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시 남녀의 자유로운 접촉을 막는 차원에서부터, 일부일처제, 여성의 재가(再嫁) 금지를 통한 정절이데올로기로 확대된다.<sup>29)</sup> 초기 개신교 여성 신자들의 개종 당시, 과부의 재가는 비록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안은 아니었

27) <재령읍의 송부인 평양교회 전도인에 복음 들음>, 《그리스도신문》, 제 1권 26호(1897년 9월30일), p. 7.

28) <철산 영동래신>, 《그리스도신문》, 제10권 31호(1906년 8월 2일), p. 740.

29) 전통 사회의 유교와 여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을 참조할 것. 심영희, 「유교와 페미니즘의 성담론」, 『위협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 1998. ; 김혜숙, 「음양 존재론과 여성주의 인식론적 함축」, 《한국 여성학》 제 15권, 2호, 서울: 한국여성학회, 1999. ; 이배용, 「유교적 전통과 변형 속의 가족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 논집 12》, 서울: 이대한국여성연구원, 1995. ; 이숙인, 「유교윤리와

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개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정절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작동되었다.

성적인 순결에 대한 과부 개종자들의 고백은 그들이 사회적인 제재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적인 부정을 죄로 고백하는 것은 남성의 축첩과 비교할 수 있는데, 남성들 또한 개종 이전 축첩이라는 성적인 부정을 회개해야 했고 많은 남성들이 이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들에게 차이점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각종 전도문서 등을 통해서, 대표적인 죄 덕목으로 거론되었던 축첩과 달리, 여성의 성적인 순결에 관한 담론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축첩 문제는 교회의 순결, 개인의 성적 순결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선교사, 본국의 선교부, 세계선교대회의 결정 등의 외부적인 요인들에 따라 가부(可否)가 결정되는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내에서 축첩이 묵인되기도 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규범들과 구분되는 예외적 성격을 가졌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적 순결에 관한 여성의 자발적인 죄 인식은 남성과 구별되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암묵적 덕목이었던 성적 순결을 스스로의 고백과 회개 속에서 가시화된 덕목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 V. 여성 개종의 논리와 의미

### 1. 단절과 부정의 메타포로서의 '죄'

개신교에서 개종은 개종자가 과거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고, 과거를 악마적인 것으로 재의미화(resignify)하면서, 개신교를 가장 효험 있는 새로운 힘으로 뿐만 아니라 빛과 삶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sup>30)</sup>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개종에는 “새로운 삶이 더 좋은 삶”(New Life is a better life)이라는 강한 확신이 담겨있다. 이러한 개종의 과정 속에서 개종자들은 개신교의 독특한 인지적 차원을 습득하게 된다. 이전의 세계관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과 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개종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개종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과거는 철저히 부정된다. 과거와 죄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부정의 근거가 바로 '죄'이기 때문이다. 그런

---

한국여성, 《여성신학논집 1》, 서울: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 1995. ; 조은, 「모성, 성, 신분제 : 조선왕조실록 재가금지담론의 재조명」, 《사회와 역사》, 제51집,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1997. ; 이재경, 「조선 전기 혼인규제와 성의 정치」, 《사회와 역사》, 제 58집, 서울: 한국사회사학회, 2000. ; 하현강, 「조선시대」, 이화여대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4.

30) Birgit Meyer, "Modernity and Enchantment: The Image of the Devil in Popular African Christianity" in Peter van der Veer, ed., *Conversion to Modernities: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ity*, New York : Routledge, 1995, p. 220.

데 특징적인 점은, 그 부정의 내용이 비단 개신교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예를 들어 술, 담배, 아편 등의 개인적인 습관에 그치지 않았으며,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행동까지 폭넓게 이뤄지면서 과거의 생활이 죄로 규정되고 더 이상 개종자의 삶에 어떤 의미도 갖지 않음이 고백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개종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죄 개념은 과거와의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지시체가 된다. 죄는 범하면 안 되는 규범, 혹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넘어서 과거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되면서, 개신교에서 부정하는 행동들, 그것들이 용인되던 과거는 죄를 양산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 평가되는 것이다. 다른 개종의 경로와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개종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죄는 단절과 부정의 메타포로서 가능하게 되고 개종자들은 이러한 죄를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속죄의례를 행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죄로 규정되는 과거가 실제의 삶에서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서 과거의 힘과 어두움의 세력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개종 이야기 속에서 철저히 죄로 규정되었던 전통 종교에 관한 개종자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개종의 순간에도 이전 종교의 힘을 두려워하던 부녀의 이야기나, 집사의 직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집에 모셔둔 신당을 만지지 못해서 선교사에게 신전 파괴를 부탁하는 부부의 이야기<sup>31)</sup> 등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전 종교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진 것이었다. 이는 개신교인들에게 개종 이후에도 역설적으로 전통 종교의 효험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이런 상황은 개종 이야기 속에서 과거 부정과 단절의 죄 개념이 이후의 현실 속에서는 모호한 의미를 지니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이질적 ‘죄’ 개념들의 변주

한편 개종 이야기 속에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죄(罪) 용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죄(罪)가 개신교 등장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개념이었음을 상기하면, 그들의 언술 속에서 등장하는 죄가 개신교적 죄 이외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용례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사들은 ‘신(God)’ 용어의 번역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는 달리, ‘죄’ 용어 번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에서 윤리적, 사회적 규범의 위반을 의미하던 이 용어를 개신교의 죄 개념으로 차용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부각시켰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종의 변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즉 한국 개종자들은 기존의 죄 용어와 그 용례를 통해서 개신교의 죄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전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에 의해서 강조된 죄가 원죄보다는 행위와 관련된 죄였으며, 선교사들이 저술한 전도문서와 잡지, 신문 등에서 원죄보다는 개신교인은 행하지 말아야 할 죄 목록들이 적극

31) F. S. Miller, "Kim's Conversion," *KMF*, Vol. 5, 1910, p. 66.

적으로 제시되었다.<sup>32)</sup>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의 죄에 관한 강조는 한국인에게 개신교의 '죄'를 개신교의 규범이자 행동지침으로서 인식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죄' 개념은 한편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 개신교 공동체에 속하려는 한국인들의 이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들이 구조되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필연적으로 '죄' 개념에 개신교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죄 개념 속에는 이질적인 혼효가 있음을 암시한다.

“...재령읍 사는 송부인은 비록 과부나 형세가 요부한 고로 다른 이보다 죄가 많은 가운데...”<sup>33)</sup>

재령읍에 사는 송부인은 형세가 요사스럽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가 많다고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죄'는 규범 위반 등의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제시한 죄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성에게 부과된 윤리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여선교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자가 자신의 죄들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다...”<sup>34)</sup>

선교사가 공주를 방문했을 당시 여선교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개종하는 한 할머니의 위의 일화에서도 이질적인 죄 개념의 혼효를 확인할 수 있다. 선교사의 글 속에서 늙은 노인의 이런 행동은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며, 그 사건은 그녀가 오로지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지만<sup>35)</sup>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죄'는 개신교적 의미를 가진 개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교의 '업(業)'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할머니의 특정한 행동이 손자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할머니는 손자의 죽음이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과오의 결과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종과 연관된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는 선교사와 개신교인들, 외국인들 모두에게 동일한 개념이자 어휘였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들 속에는 사회적, 전통 종교적, 개신교적인 다양한 의미들이 포진해있었다. 개종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죄 개념은 부정과 단절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혼재들 속에서 드러나는 모호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의 포진은 자칫 순수성을 상실한 '혼합'의 상태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유입된 종교와 이전 종교 세계관들과의 만남에서 생산된 '혼합'은 본래적인 종교사의 맥락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32) '원죄' 논의에 관해서는 즐고, 「18세기 이후 한국에서의 그리스도교 원죄 이해: 전교초기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4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6, pp. 193-216을 참조할 것.

33) <교회통신>, 《그리스도신문》, 제1권 26호(1897년 9월 23일), p. 7.

34) Edwin Kagin, *op. cit.*, p. 31.

35) *Ibid.*, p. 32.

오히려 그 종교사관의 독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의 죄 개념을 재구성하면서 드러내는 이질적인 혼효는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 VI. 결론

지금까지 개신교 유입 당시 자료들 속에 나타난 여성 개종 이야기를, 개종의 동기와 경로 등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분석해보았다. 종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기 증식을 하는 일종의 유기체다. 동일한 종교로 명명되는 경우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분명히 구분되는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종교를 수용하고, 해석하며, 의미화 하는 수용 주체를 통해서다. 수용 주체는 신념과 실천체계에 있어서 기존의 종교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로서, 기존 종교성의 배경 하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결국 새로운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이 글이 여성에 주목한 이유는 그동안 여성이 억압과 차별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묻혀진 여성의 목소리를 묻혀진 주제 속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과 대비되는 '보편적인' 여성의 경험을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여성의 경험 또한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진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역사가 모든 종류의 자료를 저장해 두고 있는 창고임을 감안할 때<sup>36)</sup> 이 글은 하나의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의의만을 가진다. 살아있는 삶과 경험으로서의 종교인 개신교 속에서 종교적 삶을 직접 살고 실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발굴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그리스도신문》

《신학월보》

《예수교회보》

*The Korea Mission Field*

강선미, 「조선과건 여선교사와 (기독교)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양현혜, 「근대 한국 사회의 변혁과 기독교 여성」, 『민족과 여성신학』, 서울: 한울출판사, 2006.

36) Susanne Heine, *Frauen der frühen Christenheit: Zur historischen Kritik einer feministischen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정미현 옮김, 『초기 기독교 세계의 여성들: 여성 신학에 대한 역사적 성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 237.

- 이덕주, 『한국교회처음여성들』, 서울:기독교문사, 1990.
- 이숙진, 「한국 개신교 주류담론이 교회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해방 이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유나, 「18세기 이후 한국에서의 그리스도교 원죄 이해: 전교초기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4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6.
- , 「초기 한국 개신교의 죄 개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Bercovitch, Eytan, "The Altar of Sin: Social Multiplicity and Christian Conversion among a New Guinea People." in Susan L. Mizruchi eds., *Religion and Cultural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Brereton, Virginia L. *From Sin to Salvation: Stories of Women's Conversions, 1800 to the Presen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 Bynum, Caroline Walker, Steven Harrell & Paula Richman, eds., *Gender and Religion: On the Complexity of Symbols*. Boston: Beacon Press, 1986.
- Carmody, Denise Lardner, *Women and World Religions*.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989 2nd ed.
- Castelli, Elizabeth A., *Women, Gender, Religion: A Reader*. with the assistance of Rosamond C. Rodman., New York: Palgrave, 2001.
- Comaroff, Jean and Comaroff, John,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Christianity, Colonialism, and Consciousness in South Africa. Vol.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Connor, Kimberly Rae, *Conversions and Visions in the Writings of African-American Women*.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4.
- Daly, Mary, *The Church and the Second Sex*. Boston: Beacon Press, 1968.
- , *Beyond God the Father: Toward a Philosophy of Women's Liberation*. London: Women's Press, 1973.
- Douglas, Mary,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1966.
- Ferguson, Marianne, *Women and Religion*. New Jersey: Prentice Hall, 1994.
- Gillespie, V. Bailey, *The Dynamics of Religious Conversion: Identity and Transformation*.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1.
- Heine, Susanne, *Frauen der frühen Christenheit: Zur historischen Kritik einer feministischen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정미현 옮김, 『초기 기독교 세계의 여성들: 여성 신학에 대한 역사적 성찰』, 서울: 이화여자대 학교 출판부, 1998
- James, William,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Modern Library, 1902.
- Juschka, Darlene M. ed., *Femi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A Reader*. London: Continuum, 2001.
- Juster, Susan, *Disorderly Women: Sexual Politics and Evangelicalism in Revolutionary New Englan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Hefner, Robert W. ed., *Conversion to Christianity: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a Great Transformation*.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Horton, Robin, "On The Rationality of Conversion Part 1", *Africa* 45/3,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1975.
- King, Ursula ed., *Religion and Gender*.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5
- King, Ursula & Tina Beattie, eds., *Gender, Religion, and Diversity: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w York: Continuum, 2004.

- Lerner, Gerda, *The Creation of Patriarc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 *The Creation of Feminist Consciousness: From the Middle Ages to Eighteen-Seven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Martin, David,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1990.
- Noble, W. A. ed. *Victorious Lives of Early Christians in Korea: The First Books of Biographies and Autographies of Early Christians in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s Literature Society, 1927.
- Rafael, Vincent L. *Contracting Colonialism: Translation and Christian Conversion in Tagalog Society under Early Spanish Rul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 Rambo, Lewis R. "Theories of Conversi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Religious Change", *Social Compass* 46/3, 1999.
- , "Conversion" in Mircea Eliade ed., *Encyclopedia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 Ruether, Rosemary Radford ed., *Gender, Ethnicity, and Religion: Views from the Other S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Scroggs, James R. and Douglas, William G.T. "Issues in the Psychology of Religious Convers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 204-216.
- Sharma, Arvind ed., *Women in World Relig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 ed., *Religion and Wome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 ed., *Methodology in Religious Studies: The Interface with Women's Stud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 Sharma, Arvind & Katherine K. Young, eds., *Feminism and World Relig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Stromberg, Peter G. *Language and Self-Transformation: A Study of the Christian Conversion Narra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Veer, Peter van Deer ed., *Conversion, Competition and Conflict: Essays on the Role of Religion*. Berlin: Free University Press, 1984.
- ed., *Conversion to Modernities: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ity*. New York: Routledge, 1994.